

#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 전국 종합평가 '최우수' 영예

###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전국 227개 시군구 중 1위 제주항공 참가 관련 물품 지원·취약계층 봉사활동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는 최근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2025년 전국 시군구 청년새마을연대 종합평가'에서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올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청년새마을연대의 한 해 활동 실적과 지역사회 기여도,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는 지역사회 공헌과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 시상금 70만원을 수여 받았다.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는 박종훈 회장을 중심으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제주항공 참가 관련 200만원 상당 물품 지원, 설·추석맞이 시장 온·냉차 봉사(각 500인분), 취약계층 키위 나눔(90상자), 어르신 여름나기 삼계탕 봉사(200인분), 수험생 응원을 위한 사랑의 커피차 운영(500인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는 이번 수상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시상금 70만원 전액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박종훈 회장은 "전국 1위라는 값진 성

과는 보성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회원들의 노력과 보성군민들의 응원 덕분"이라며 "회원들과 뜻을 모아 포상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장학재단 기탁을 결정했으며, 보성의 후배들이 꿈을 펼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오 이사장은 "전국 평가에서 보성의 위상을 높인 것도 모자라 소중한 상금까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내어준 청년새마을연대에 감사하다"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장학금을 보성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장학재단'은 올해 3월 23일 기준 총 201억원(출연금 177억원·기탁금 30억원 등)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imth68@gwangnam.co.kr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는 최근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2025년 전국 시군구 청년새마을연대 종합평가'에서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올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보성군

# 안도걸 "민간투자 100조 시대 개막"...이 정부, 성장엔진 재가동

### '재정 한계 돌파한 구조전환' 정책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 남구읍,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은 24일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제도는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투자가 단순 보완수단을 넘어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빠르게 제약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송배전 전력망과 에너지 고속도로, RE 100 기반 인프라 등 미래 전략 분야 투자를 민간과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자금이 국가 전략 인프라 투자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제성장률과 국민참여 확대, 지방 중심 민간투자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하는 종합 전략으로, 민간투자를 국가 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규모를 기존 연평균 14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민간투자 100조 시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울러 지방 주도 민자사업 확대,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 부대사업 활성화, 안전 기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구조개편을 통해 민간투자의 범위와 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김숙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률과 국민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 중심 구조에서 지방 주도형 민자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읍,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 지난 24일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도걸 의원실

지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발제를 통해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방안을 강조했다.

주재홍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은 '미래신산업 분야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혁신 공간 창출과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투자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재정

립하며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며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국가 전략투자자와 결합하는 이구조전환이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국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민자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남도풍경연구소, 무안군과 관광홍보 협약 체결

### 무안의 관광자원 사진 리뉴얼화로 전국 홍보 본격 추진

남도풍경연구소(소장 최근영)는 무안군과 '무안군 자연·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4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특색, 관광자원을 고품질의 사진 콘텐츠로 기록하고, 연구소의 전국 단위 민간 홍보 네트워크를 통해 무안의 관광 경쟁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남도풍경연구소는 2022년 설립된 비영리 전문단체로 28명의 연구위원과, 30명의 자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전북 등 남도 지역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개설 11년차로 83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밴드 '남도풍경'을 비롯해 서울 5개 여행출사단체와 연계된 30만 명 규모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남도의 아름다움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2026. 3. 24.(화) 16:00 군수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구소는 무안군의 주요 관광지, 축제, 문화행사 등을 촬영해 사진전과 사진집 발간, SNS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최근영 소장은 "이번 무안군과의 협약을 계기로 무안 지역 관광사진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무안이 가진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남도관광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4일 장흥 관산읍 수동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소개하고 안전대학 강사의 생활안전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전남도

# 섬·취약지 찾아가 치안문제 해결한다

### 전남자치경찰청, 장흥서 '우리동네 치안 이야기' 소통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섬이나 치안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동네 치안이야기' 프로그램을 지난 24일 장흥군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동네 치안이야기 프로그램'은 전남의 섬 지역과 치안 취약 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문제와 안전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자치경찰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치안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장흥 관산읍 수동마을과 대덕읍 초당마을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소개하고 안전대학 강사의 생활안전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통안전을 포함한 마을

치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마을의 치안 관련 예로, 건의 사항을 청취, 이를 위원회의 '치안 수요자 맞춤형 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우리동네 치안이야기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치안 문제를 직접 듣고, 민·관·경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개최하고 마련된 성금을 백혈병소아암후원회에 전달했다.

# 광주도시공사,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전달

###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마련...배우 이상인 행사장서 응원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개최하고 마련된 성금을 백혈병소아암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사)백혈병소아암후원회와 라이나생명, 한솔도시락이 함께했으며, 캠페인 참여자 1인당 1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성된 성금 전액은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 앞서 (사)백혈병소아암후원회 연례인 홍보단인 이상인 배우가 방문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환아들에게 큰 도움으로 전해질 것"이라며 기부를 응원하기도 했다.

김승남 사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참여가 병마와 싸우는 어린 생명들에게는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은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영광축산농협조합은 최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2025년도 전남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영광축산농협조합

# 영광축산농협, 종합업적평가 '우수상'

### 농업중앙회 평가...신용사업 등 호평·임직원 3명 표창도

영광축산농협조합은 최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2025년도 전남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영광축산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뿐만 아니라 조합원 환원사업, 경영 건전성 등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한 경영성과

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수상으로 영광축산농협은 농협중앙회 평가 명의 사무소 표창과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한 표창, 연간 누계 9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김용출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자, 무엇보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함께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정규발 기자 ykjp98@gwangnam.co.kr